

대한항공 창립 56주년 ‘보딩데이’ 행사

조원태 “‘KE 웨이’로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 도약”

(한진그룹 회장)

글로벌 항공사 성장방향 제시
‘수송보국’ 바탕 전세계 연결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 될 것”

“올해 본격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기업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KE 웨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의 구심점이자, 대한항공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창립 56주년 행사 ‘보딩데이’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기업 가치 체계 ‘KE 웨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서의 도약을 다짐한 것이다.

이날 대한항공은 기업의 존재이유를 비롯해 새로운 비전, 미션 등을 담은 ‘KE 웨이’를 공식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타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보딩데이’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홀 미팅도 진행했다. 그는 지난 56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비전 등 회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임직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대한항공은 최상위 개념인 존재이유를 ‘Connecting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로 명명했다. 한진그룹의 창립 이념인 ‘수송보국(輸

送報國)’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 전세계를 연결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비전과 미션은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새 비전은 “To be the world’s most loved airline(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이다.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객 만

족 달성을 통해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 및 운영 ▲고객과 동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전 세계 활발한 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해 구성했다.

조 회장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소통에 기반을 둔 임직원 중심의 점진적 융합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문화 융합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으며, 양사 직원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공개를 앞둔 신규 CI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 도약하는 시작점에 서있는 만큼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고객과 임직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새로운 브랜드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신규 CI를 선공개하고, 추후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점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 유니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EU 자동차산업 ‘액션 플랜’ 발표 임박 K-배터리, 보조금 지급기준 선제 대응

유럽 내 생산 계획·전략 영향
“배터리 업체들 긍정적 기회”

유럽연합(EU)이 최근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유럽 자동차 산업 관련 ‘액션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와 지급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계획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오는 5일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럽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배터리 업체는 유럽 액션 플랜

의 보조금 지원 방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유럽 내 배터리 공장 생산능력(CAPA)은 약 220GWh(기가와트시)다. 이는 전기차 대수 기준으로 약 320만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지난해 기준 유럽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300만대 수준이었으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약 35%로 집계됐다. 3사는 현재 유럽 내 공장에서 생산능력에 훨씬 못미치는 약 100만대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액션 플랜이 유럽 내에서 조달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표될 경우 유럽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 주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휴 생산능력 활용이 확대되면서

가동률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 공장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한국의 수혜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현재 유럽 시장 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40%에 달하며 한국 전기차 판매량이 유의미한 성장세를 갖지 않는 한 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정책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중국 기업들의 유럽 내 생산 확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장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발표 이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송호성 기아 사장 “전기차 대중화 주력”

주주서한 통해 향후 계획 공유
총주주환원율 30→35% 상향

송호성 기아 사장(사진)은 “이제 EV 대중화, PBV,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4일 주주서한을 통해 “지난 5년간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제품 부가가치 증가율과 수익성을 기록했다”며 전기차(EV) 대중화 전략을 올해 과제로 꼽았다.

송 사장은 “지난해 EV3를 시작으로 EV4, EV5, EV2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해 대중화 모델 풀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EV2에서 EV5에 이르는 대중화 모델 풀라인업은 내연기관 차량과 총소유비용(TCO) 측면에서 대등한 수준을 확보해 EV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BV(목적기반차량)와 픽업트럭 출시로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는 계획이다. 송 사장은 “차세대 PBV 사업은 장기적인 준비 끝에 2025, 드디어 첫 기아 PBV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맞춤형 차량 제작사업인 특수차량 사업에서 축적한 40년 이상의 오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을 입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사장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밸류업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총주주환원율(TSR)을 30%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2027년까지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 사장은 “주주는 기업의 장기 성장과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기업 가치 상승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K하이닉스, 美 매출 33.5조… 2.6배 ‘썩춤’

HBM 주효… 순이익 1000억 돌파

SK하이닉스의 2024년 미국 시장 매출이 2.6배 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확대로 AI용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4일 SK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미국 판매법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S

K hynix America Inc.)’는 2024년 매출 33조4859억원, 순이익 104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매출(12조5419억원) 대비 약 2.6배(166.8%) 증가한 규모다.

미국 판매법인 등 현지에서 올린 매출은 SK하이닉스 연간 매출액(66조193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반도체 업황이 상승 추세로 전환

한 것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DR5 등 빅테크발 AI 메모리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해 HBM 물량을 ‘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5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에 주력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HBM3E 16단, 하반기에는 ‘커스텀(맞춤형)’ 제품인 6세대 HBM4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구남영 기자 koongja_1ea@

현대차그룹, 솔라스틱 등 사내 스타트업 분사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 스타트업 4곳이 분사해 독립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유망 사내 스타트업 ‘솔라스틱’, ‘ROAI’, ‘HVS’, ‘플렉스온’ 등 4곳을 분사시켰다고 4일 밝혔다.

스타트업 4곳은 ▲플라스틱 패키징을 활용해 가볍고 디자인이 자유로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솔라스틱’ ▲로봇 자율제어 기술을 통해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는 ‘ROAI’ ▲습

기 및 부식을 방지하는 소재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HVS’ ▲친환경 휠 밸런스 웨이트 및 배터리 방폭 패드의 소재를 제조하는 ‘플렉스온’ 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0년 사내 스타트업 육성 제도 ‘벤처플라자’를 시작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제로원 컴퍼니 빌더(ZERO1NE COMPANY BUILDER)’라는 이름으로 현대차그룹 임직원 대상 사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